

세계적 건축가 작품 설치장소 10곳 확정

광주 구도심 문화웃 입는다

푸른길 공원 3곳에도
내년 8월까지 마무리

▲'어번 폴리' = 도시를 뜻하는 어번(Urban)과 장식용 건물을 뜻하는 폴리(Folly)의 합성어로,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의미한다.

고려시대 축성된 뒤 일제에 의해 파괴된 옛 광주읍성터 내 10곳에 세계적인 건축가 10명이 설계한 기념비적인 건축물 10개가 들어선다. 또 구도심철도 이설부지에 조성된 푸른길 공원 3곳에도 세계적인 건축물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은 3일 광주비엔날레 회의실에서 국제워크숍을 열고, 내년에 열릴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의 하나로 옛 광주읍성터 내 10곳과 푸른길 공원 3곳 등 13곳에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는 '어번 폴리 프로젝트(Urban Folly Project)'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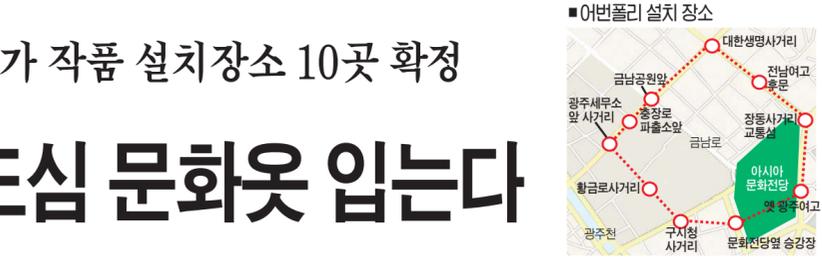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주아탕, 육개장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별강연

- 객 실 :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 풀인치 :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이링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227-8500
www.hiddlinkhotel.com



강운태 광주시장과 '어번 폴리'(Urban Folly)프로젝트 참여 건축가들이 3일, 폴리(건축조형물)가 설치될 광주시내 10곳의 후보지 가운데 광주시 동구 장동사거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교차로인 이곳에는 '연결'을 의미하는 폴리가 건립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날 워크숍은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상임부이사장, 승효상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참여작가 등이 참석한 어번 폴리 프로젝트의 배경과 기본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기자회견 및 MOU체결, 건축가 토론, 현장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시 모집
기간 원시접수 12월 17일-22일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람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워크숍 참여작가들은 광주 구도심이 잃어가고 있는 5개의 도시기능(삶, 일, 치유, 공동체, 전시)을 각각의 고유한 시각으로 재해석, 버스승강장과 화장실, 키오스크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로 했다.

옛 광주읍성터 내에 건축물을 설치할 건축가로는 도미니크 페로(프랑스)와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스페인), 시게 루반(일본), 플로리안 베이글(영국), 피터 아이젠만(미국), 조성룡(한국), 나테르 테라니(미국), 후안 헤레로스(스페인) 등 8명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2명은 현상공모 등을 통해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푸른길 공원 건축물 설치에는 승효상(한국)과 아이웨이웨이(중국) 등 2명이 참여하며, 나머지 한 명은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기념하고 광주의 문화자산이 될 이들 건축물(어번 폴리) 설치에는 총 사업비 22

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1월 말까지 건축 설계안이 확정되면 8월까지의 건축을 마무리하게 된다.

건축물 설치장소는 ▲옛 광주읍성터인 장동사거리 교통삼 ▲전남여고후문 ▲대한생명 사거리 ▲금남로공원 앞 ▲충장파출소 앞 ▲광주세무서 앞 ▲서석로 아시아음식문화거리 ▲구시청 사거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앞 버스승강장 ▲옛 광주여고 입구 등이다. 푸른길 공원의 설치 장소 3곳은 현장 답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승효상 감독은 "폴리프로젝트는 광주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담은 문화적 충격을 제공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것은 물론 도시디자인 사업과 연계한 디자인도시 기반 구축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낙후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전남 선거사범 부끄러운 1위

905명 적발 민주시정 무색...10만명 당 27명으로 서울의 5배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광주·전남 선거사범 수가 900명을 넘어선 전국의 2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선거사범 수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선거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검 공안부(김형철 부장검사)는 3일 "제5회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2일까지 광주지검 본청에서만 318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17명(구속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전체 입건자 수는 본청 318명을 비롯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299명, 목포지청 213명, 해남지청 50명, 장흥지청 25명 등 모두 905명으로 전국 선거사범 4614명의 19.6%를 차지했다.

특히 광주와 나주, 담양 등 전남 6

개 시·군을 담당하는 광주지검 본청의 입건자 수는 인천지검 220명, 대구지검 208명, 서울중앙지검 196명, 수원지검 164명 등 비슷한 규모의 검찰청을 압도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순천지청과 목포지청도 지청 단위에서 다른 곳보다 월등히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선거사범수(27명)는 서울(4.8명)의 5배가 넘었다.

이 가운데 전주(사퇴) 전 서구청장, 전완준 화순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황우홍 강진군수 등 5명의 단체장 당선자가 기소됐으며 전주인 전 구청장과 전완준 군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검은 318명 가운데 217명(68.2%)을 기소해 전국 기소율(62.5%)과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때 자체 기소율(62.9%) 보다 높았다.

광주지검 입건자는 범죄유형별로

금전선거, 흑색선전, 불법선전, 폭력 등 순으로 많았으며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서 공무원 50명이 개입해 9명이 기소되고 협의가 가벼운 41명이 입건 유예되는 등 공무원 개입이 두드러졌다. 경찰이 치열했던 선거구에서는 불법 위치추적(곡성군수 선거), 미행조교용(장성군수 선거)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해 위반 유형도 다양해졌다.

이 지역에 입건자 수가 많은 것은 민주당 후보 경선이 치열했던데다 무소속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선거가 과열됐고, 이에 따라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도 다른 지역보다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건주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금품 제공 등을 통한 지역 정치인들의 불법적 조직관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선거문화 개선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회통합위 "지방분권 강화위해 개헌 필요"

주거지역 1000㎡ 이상 SSM 못들어지게 해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3일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위기 상황은 평화와 안보의 프레임 구도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제3의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위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 등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사회통합위가 지난 3월부터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을 초청해 대외정책과 지방분권, 교육 등 분야별로 9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마련한 합의 사항 60개가 포함됐다.

사회통합위는 "남북관계의 근간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뒤흔드는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적으로 약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도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한미간 이뤄진 전작권통제권 이양 합의도 오는 2015년까지 차질 없이 되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위는 "미래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주민자치, 지방재정조정, 지역대표형 상원 제도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회통합위는 또 정책과제로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책도 각각 제시했다. 사회통합위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이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패배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허용하는 '석패율제'와 비례대표의석수를 확대하고 권역별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 시적으로 폐지하고, 교육감은 시도지사과 러닝메이트로 뽑는 방안을 대안으로 국회와 정당 등에 전달키로 했다.

특히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는 데 있어 기존의 '유동상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주거지역에는 1000㎡ 이상의 SSM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기존의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토록 권유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光州日報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 이웃돕기 따뜻한 광주·전남 ▶3면 카드사 할인 이벤트 ▶4면 웰다잉 가이드라인 ▶5면 로맨틱 코미디 영화 붓물 ▶10면 '광저우 영웅' 박정환·이슬아 ▶15면

특별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화순 이리스파크

창을 열면 청정 수목원, 문을 나서는 만연산 푸른빛 환경이 빛나는 푸른숲 전원주택을 만나보십시오.

1단지
2단지

賢晶産業開發(株) | TEL 062-385-1013·1014
HYUNJOUNG INDUSTRIAL DEVELOPMENT INC